

미국 ABC “홀로코스트, 인종문 제 아냐” 우피 골드버그 2주 출 연정지

✎ 김예리 기자 |

🕒 승인 2022.02.03 11:56

**진행자 동 프로그램서 사과, ABC “유대인 공동체와 연대”
‘쥬’ 저자 슈피겔만 “유대인이 ‘명예 백인’ 된 현재, 혼란 느낀
듯”**

미국 코미디언이자 배우 우피 골드버그가 자신이 진행하는 토크쇼에서 “홀로코스트는 인종 문제가 아니다”라고 발언했다가 해당 방송사로부터 2주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

김 고드윈 ABC뉴스 사장은 2일(현지시간) 입장문을 내고 “우피는 잘못 되고 상처를 주는 발언을 했다”며 골드버그를 해당 쇼에서 2주 간 출연 정지 처분한다고 밝혔다. 고드윈 사장은 “그가 사과했지만, 나는 그에게

성찰할 시간을 가지고 자신의 발언의 영향력에 대해 배울 것을 요청했다”며 “ABC뉴스 조직 전체는 우리 유대인 동료와 친구, 가족과 공동체와 연대한다”고 했다. ABC뉴스는 자사 보도로도 이 소식을 전했다.

앞서 골드버그는 지난달 31일 자신이 공동 진행하는 ABC의 토크쇼 ‘더뷰’에서 “홀로코스트는 두 백인 집단 간에 일어난 문제”라며 “인종 문제가 아닌 인간의 인간에 대한 잔학 행위”라고 주장했다.



VIDEO

LIVE

SHOWS

CORONAVIRUS

JAN. 6 RIOT



Whoopi Goldberg suspended from 'The View' for 2 weeks over Holocaust comments

The host apologized for the comments Monday night.

By ABC News

2 February 2022, 11:57 • 3 min read



▲ABC의 우피 골드버그 일시 출연정지 결정을 알리는 ABC뉴스 보도 갈무리. ABC뉴스 홈페이지

골드버그는 홀로코스트를 다룬 그래픽노블 '쥐'가 욕설과 나체 묘사를 이유로 테네시주 맥민카운티 교과 과정에서 금지 처분된 소식에 대해 대담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골드버그는 교육자료 사용 금지 처분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쥐'는 작가 아트 슈피겔만이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저자 부모님이 겪은 일을 만화로 그린 작품이다.

골드버그는 해당 발언이 비판에 휩싸이자 CBS의 다른 토크쇼에 출연해 당초 발언을 옹호하면서 또다시 비판을 샀다. 이후 골드버그는 SNS로 입장문을 발표하고 "홀로코스트는 인종 문제이자 인간에 대한 잔학행위라고 말했어야 했다"며 "상처를 야기한 데 사과한다"고 밝혔다. 골드버그는 이튿날인 1일 해당 쇼에서 사과한 뒤 자신의 발언을 비판했던 미국 유대인단체 반명예훼손연맹(ADL) 활동가와 대담 코너를 진행했다.

작가 아트 슈피겔만은 미국의 독립언론 '데모크라시나우'에 출연해 골드버그의 발언을 두고는 "유대인이 '명예 백인'이 된 현 상황에서 골드버그가 실제 논점이 무엇인지에 혼란을 가졌던 듯하다"라며 "골드버그가 특히 사과를 한 만큼 쇼에 계속 출연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예리 기자 ykim@mediatoday.co.kr

